

1	④	2	⑤	3	⑤	4	④	5	③
6	②	7	③	8	②	9	④	10	⑤
11	②	12	②	13	①	14	④	15	②
16	④	17	②	18	①	19	③	20	①

총 평

사회·문화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는 '개념'을 잘 확인하고 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개념과 말장난이 다소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표는 기출 변형으로, 별 어려움 없이 풀리도록 출제했습니다.

해 설

01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 ④

★ 항상 밑줄에 조심하세요 !

㉠은 자연 현상, ㉡~㉣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은 '발표'에 주의) ① 가치 함축적인 것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②~③ ㉡, ㉢ 모두 사회·문화 현상이라 '달리', '비해'라는 말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④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⑤ 동일 조건하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 현상인데, ㉠만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02 다양한 문화 양상 ⑤

★ 지역 문화는 웨이크로 한 번 넣어 봤는데,, 반문화와 마찬가지로 지역 문화 또한 하위 문화의 일종입니다 ~

A이며 B인 것도, A가 아니며 B인 것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A가 지역 문화, B가 하위 문화, C가 주류 문화가 되겠습니다. ① 방금 말했어용. ② 모든 A(지역)가 B(하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③ A~C 모두 사회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됩니다. ④ 하위 문화가 풍부할수록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또한 증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문화도 하위 문화죠 ⑤ 하위문화는 곧 주류 문화를 바탕으로 상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C(주류) 또한 향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03 연구 윤리 ⑤ (ㄱ, ㄴ, ㄷ)

★ 뭐.. 설명이 그닥 필요 없죠?

(ㄱ) (가)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경우, 연구 결과 발표 전이라도 대상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ㄴ) 자료 분석 단계에서 가치가 개입되면 큰일나겠죠~ (ㄷ) 그렇죠? (가)에는 대상자와 관련한 말이 쓰여 있고, (나)에는 연구 과정과 관련된 말이 쓰여 있네요. 이거는 뭐, 틀렸으면 큰일나는 거죠.

04 양적 연구의 탐구 과정 ④

★ 요즘은 양적 연구 문제가 굉장히 길어져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6평 대비 모의고사부터는 반영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7

독립 변인 처치를 X에 하고, Y에 하지 않았으니 실험 집단은 집단 X, 통제 집단은 집단 Y가 되겠습니다. ① 모집단은 '학생'이고, 표본이 '○○중학교 3학년 재학생 100명'이 되는 것이겠죠! ② ㉠이 독립 변수인 것은 맞으나, ㉡은 ㉠이 아닌 '정서적 불안'에 대한 조작적 정의죠 ③ 앞에서 말했죠? 또 애초에 독립 변인을 처치하지 않은 집단은 통제 집단이라고 부르죠. ④ N3이 더 크다는 것은, 집단 Y 학생들이 더욱 불안하다는 뜻이죠. 일단 사후 검사는 ㅇㅋ. 근데 또 N1과 비교를 해 봐야죠. 근데 조건에서 N1과 N2, N3 간의 관계를 알려 주었으니, X는 감소, Y는 의미없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는 성립이 되는 말이에요! ⑤ 가설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가설 검증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05 빈곤 ③ (ㄷ, ㄹ)

★ 절대적·상대적 빈곤 모두 '객관적' 수치로 판단되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조심 !!

A는 절대적 빈곤, B는 상대적 빈곤입니다. 최저 생계비가 90만원이고, 9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 가구는 a~g입니다. 중위 소득은 K의 소득이고, K의 소득은 170만 원이므로 중위 소득의 50%는 85만 원입니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 가구는 a~f입니다. (ㄱ) 개인이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ㄴ) 이거 계산하신 분 없죠..? 저도 계산기로 돌리니까 413 쯤 나오던데, 애초에 r~u 이쪽이 소득이 엄청난데 어떻게 평균이 170이 나오겠습니까! 이걸 그냥 수리적 감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ㄷ) A에 해당하는 가구는 a, b, c, d, e, f, g의 7가구입니다. (ㄹ) 상대적 빈곤이 아니고 절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가구는 g이고, g의 소득은 89만 원입니다. 89\*2=178이기 때문에, 중위 소득의 2배보다 큼니다. 따라서 중위 소득은 178보다 작으니 맞는 말입니다!

06 문화의 특성 ② (ㄱ, ㄹ)

★ 요즘은 문화의 특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또한 6평 대비에서는 힘 줘서 출제해 볼게요! )><

(ㄱ) ㉠에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은 공유성으로, 이는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 작용의 바탕이 됩니다. (ㄴ) ㉡의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가 맞으나, 배고파서 음식을 찾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기에 문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ㄷ) ㉢에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은 총체성인데, 선지는 축적성을 말하고 있네요. (ㄹ) 그렇죠! 농기계라는 새로운 물건이 등장하며 소에서 바뀌었고, 직업이 많이 생기면서 변화가 되고 있죠. (다소 모호한 (ㄴ) 선지를 수정하였습니다.)

07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③

★ 진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유형인데,, 요즘 계속 내니까,, 어쩌겠습니까,, 까리면 까야죠,, 후진짜해설쓰면서도진짜풀기싫게생겨서짜증나는데일단정리해보죠

나가이어나내가이어나(근데제가출제하긴함) 일일이 설명하긴 그러니  
갑~병의 소개에 나타난 사회 집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 X 전자, 사내 운동 동호회, [환경 보호 단체], (+A회사, □□대)

을: X 전자, 환경 보호 단체

병: X 전자, 가족, □□대 대학원

병에서 '가족'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갑의 소개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X 전자, A 회사, □□대로 총 3개이고, 을의 소개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은 X 전자와 환경 보호 단체로 2개입니다. 적은 게 아니라 많죠! ② 을의 소개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는 환경 보호 단체 뿐이라 1개, 을이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은 X 전자와 환경 보호 단체로 2개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가 공식 조직보다 적습니다. ③ 병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은 X 전자, 가족, 대학원으로 3개이고, 갑이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은 X 전자, 환경 보호 단체로 2개입니다. 따라서 사회 집단이 더 많기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④ 문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대 밖에 없어요. 하지만, 갑은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속해 있지 않고, 그렇기에 내집단인지 판별도 불가능합니다. ⑤ 을과 병은 함께 X 전자에 속해 있습니다 ~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는 환경 보호 단체가 되겠네요! 진짜 더럽다 그죠..?

### 08 사회 변동 이론 ②

★ 본의아니게 2페이지에 뻥센 문제가 조금 많아졌네요..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순하게 냈으니까 풀 수 있어요 화이팅

우선 을에게 모든 정보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을로 판별을 하여야 합니다. A가 진화론이 아니고, B가 순환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A가 순환론, B가 진화론입니다. 그러면 갑은 1번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맞아야 해요. 그러면 ㉠은 자연스레 아니요가 되고, ㉡은 예가 되겠습니다. ① 바뀌었죠 둘이? ② 각각의 문화가 어느 수준까지 발전하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순환론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③ 앞은 맞으나, 진화론은 단순 → 복잡을 이야기하죠 ④ (가)는 '예', 즉 맞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서구 중심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건 B죠. 개소리를 지 썰었으니 탈락! ⑤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것은 B니까 맞말인데 들어갈 수 없단뇨!

### 09 일탈 이론 ④

★ 이거 그림들 제가 일일이 박스 그려서 타이핑친 거예요 (자랑) 읽어 보면, 갑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을은 낙인 이론, 병은 차별 교제 이론으로 분석할 수 있겠네요. ①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네요! ②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니 적절합니다. ③ 차별 교제 이론에 대한 설명이니 적절합니다. ④ 을과 병의 일탈은 물론 사회 구조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측면으로 보는 게 더 용이하겠죠. ⑤ 일탈 행동을 방지할 수는 없겠죠..? 뭐 넣을까 하다가 교과서 대중 속 보고 집어 넣은 선지입니당

### 10 관료제와 탈관료제 ⑤

★ 지면이 부족해서 짧게 짧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당

A는 관료제, B는 탈관료제입니다. ① 그렇죠! 탈관료제는 이와 달리 능력에 따라 성과가 제공됩니다. ② 대표적인 관료제의 한계점이 인간 소외, 목적 전치 현상이죠. ③ 그렇죠! 탈관료제의 등장 배경 중 하나가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비하기 위해서가 있죠. ④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은 관료제가 더 높습니다. ⑤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 즉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체제는 관료제에서 나타납니다.

### 11 계층 구조의 분석 ② (ㄷ)

★ 꼭 100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는 점..

그림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70	2000
A국	상층	X	2Y
	중층	4X	Y
	하층	2X	4Y
B국	상층	3Z	W
	중층	6Z	4W
	하층	2Z	8W

꼭 100으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과 같이 절대수를 상정하는 경우는 문제에서 '인구'를 물을 때예요. (ㄱ) 1970년 B국의 하층 비율은 2/11이고, 2000년 A국의 상층 비율은 2/7입니다. 어 2Y 2Z 같네 ~ 하고 달려드시면 큰일납니다. (ㄴ) 전형적인 사문식 웨이크죠. 인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습니다. (ㄷ) A국은 1970(다이아), 2000(모래시계), B국은 1970(다이아), 2000(피라미드)입니다. 결국 다이아몬드형 구조가 사회 통합에 유리하겠죠. 중산층 비율이 높으니까요!

### 12 문화 이해의 태도 ②

★ 무난~ 무난~

A는 자문화 중심주의, B는 문화 상대주의, C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①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양에 기여할 수 있죠! ② 문화 제국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연관있는 말입니다! ③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이슬람권 국가의 명예 살인과 같은 보편 윤리를 거스르는 일도 허용하게 되어 버려, 보편 가치를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A, B는 크게 문화 절대주의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들은 우열을 매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⑤ 상대주의는 곧 우리 문화 싫어!!를 외치기 때문에, 자문화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13 사회 운동 ①

★ 사회 운동의 조건은 다수 + 체계 + 목적 3박자!

① ㉠은 개인의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 운동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은 장애인 급여 개혁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진적이지 않죠. ㉢은 현상 유지가 아닌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합니다. ④ ㉠도 감독 경질이라는 목표는 있습니다. ⑤ 오히려 ㉡에 대한 설명이라 봐야죠.

## 14 문화 변동 ④

★ 왠케 사문은.. 길게 내는 걸 좋아할까요.. 저도 길게 만든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요약하자면, 효문제는 한화 정책 실시해서 한족의 문화로 선비족 문화를 없앴습니다. 이는 곧 직접 전파이고, 문화 동화가 나타났네요. 하지만 이는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들이 좋다고 했으니까요. 청나라의 경우 변발령을 내렸는데, 이것도 직접 전파죠. 그리고 문화 동화가 나타났고, 이것은 반발도 있었으니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 봐야겠네요. ① 북위·청나라 모두 직접 전파가 나타납니다. ② 북위·청나라 모두 외재적 변동을 겪었습니다. ③ 북위는 자발적 문화 접변, 청나라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되겠습니다. ④ 북위와 청나라 모두 문화 동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⑤ 청나라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북위는 피지배 집단이 한족인데, 그 집단에 맞춰 주겠다고 누가 거부하겠어요!

## 15 복지 제도 ② (ㄱ, ㄴ)

★ 요즘 가중 평균 문제가 안 나오기는 하는데, 교육청이니까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입니다. <자료 2>를 해석해 보면, 먼저 인구비부터 구해야겠죠. 인구비 구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가중 평균의 원리부터 학습하고 오세요! (가)의 전체 평균으로부터의 A·B구의 거리를 보면,  $10:5 = 2:1$ 입니다. 따라서 A구와 B구의 인구비는  $1:2$ 가 되겠습니다. (ㄱ)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사회 보험입니다. 공공 부조는 사후 처방이죠. (ㄴ) 공공 부조는 우리가 배우는 복지 제도 3개 중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공공 부조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ㄷ) 수급자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때 A구의 인구를 100명, B구의 인구를 200명으로 잡았습니다.

	A구	B구	전체
(가)	45명	60명	105명
(나)	8명	34명	42명

(가)의 수급자는 A구보다 B구가 15명 많고, (나)의 전체 수급자는 42명, (가)의 B구 수급자는 60명이기에 뒷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 문장이 틀렸기에 부적절합니다.

## 16 정보 사회의 문제점 ④

★ 이거 챗GPT가 써줬어요.. 똑똑하네요 이놈

결국 읽어 보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④입니다. 진짜 해설이 필요가 없음. ②라고 하기에 정보 격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에서 '부각되어'라고 말했죠.

## 17 자료 수집 방법 ②

★ 실험법이 아닌데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운운하는 건 웃기죠

① ①의 독립 변수는 주기적인 모임의 유무가 맞고, 이를 질문지에서 4주에 1번 이상 참여하는 모임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했어요. ② 특정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는 것은 맞지만, 어떠한 처치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통제·실험 집단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③ 갑이 첫 번째로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문헌 연구법으로, 경제성이 가장 높아요. ④ 갑이 두 번째로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으로, 문맹자에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⑤ 질문지법과 문헌 연구법 모두 양적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 18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①

★ 2209의 비밀결사를 뛰어 넘을 문제는 언제쯤 나올까요?

팀보다는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 명목론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ㄱ), (ㄴ)가 사회 명목론과 관계가 있고, (ㄷ), (ㄹ)는 사회 실재론의 입장이 됩니다.

## 19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③

★ 이 문제 만드는데 계속 오류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후

① (가)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비판을 받는가라면, 이는 기능론만 O라고 답하겠죠. 따라서 A가 기능론이 됩니다. ② ①이 예라면 (ㄷ이 아니요라면) (나)는 아니요, 아니요, 예가 되는데,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은 기능론과 갈등론 2개입니다. 즉 예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적절하지 않아요. ③ B가 갈등론이고, (다)에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B와 C의 답이 같기에 C가 기능론이 됩니다. 기능론은 사회 각 부분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죠. ④ (다)가 상황 정의의 관련 내용이라면, 자동적으로 A가 상상론, (ㄷ)가 '예'가 됩니다. 그러나, (가)에 사회 불평등의 불가피성에 대해 논하면, 갈등론은 아니요, 기능론은 예라고 답합니다. 따라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⑤ A와 B, C를 사회 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가로 구분한다면, A가 기능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B에 갈등론을 넣는다면 (나)가 충분히 성립됩니다. 따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20 저출생·고령화 문제 ① (ㄱ, ㄷ)

★ 기출에서 많이 본 향기가 나죠..? + 웨이크 주의!

자료 해석에 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총 인구는 나중에 생각하고, 노령화 지수를 통해 일단 '비'를 구해 봅시다. 노령화 지수가 50이라는 것은 노/유 = 1/2라는 소리고, 112.5라는 것은 9/8이라는 소리죠. 이를 바탕으로 표를 만들어 봅시다.

	2000년	2020년
유소년 인구	2A	8B
부양 인구		
노인 인구	A	9B

여기서 결국,  $2A = 25$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100으로 맞추기 위해선  $8A = 100$ 이니까, 부양 인구는 5A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을 볼까요?  $9B=45$ 라는 소리니까,  $B=5$ 이니,  $20B=100$ 이겠죠. 따라서 부양 인구는 3B가 되겠습니다. 이제 표를 다 채울 수가 있네요. 이 표를 바탕으로 계산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2000년	2020년
유소년 인구	2A	8B
부양 인구	5A	3B
노인 인구	A	9B
총인구	100	140

2000년 총인구를 100으로 잡으면, 2020년은 140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 준다면?

	2000년	2020년
유소년 인구	25	56
부양 인구	62.5	21
노인 인구	12.5	63
총인구	100	140

이제 다 해결되었네요 ~

- (ㄱ) 2020년에 노인 인구 (63) = 부양 인구 (21) \* 3 이죠. 굿잡
- (ㄴ) 25%에서 40%가 된 것이니까,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 (ㄷ) 유소년 인구는 31명 증가했고, 노년 인구는 50.5 증가했네요. 그렇다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 (ㄹ) 평가원에서 한 번 낚은 적 있는 선지예요. 부양비는 인구비를 말하는 것이지, '비용'은 아닙니다 !!